



## 도서관 장서선정을 위한 제언

글 | 김 홍 식

서해문집 대표 / paja@paran.com

도서관에서 장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장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 장서는 베스트셀러 중심의 독서를 추구하는 도서관 일반 사용자층과 과제, 숙제, 자격증 습득 등 타의에 의한 장서 활용층, 도서관 장서에 대한 능동적인 선택을 선호하는 도서관 주요 사용자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중 공공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층은 셋째 사용자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도서관의 비치 도서 또한 소수의 베스트셀러 및 인기 도서 비치,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학습 보조 도서 비치, 그리고 사용자는 많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도서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독서를 가능케 하는 대부분의 도서 비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한다. 우선 사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찾는 인기 도서, 베스트셀러의 비치 비율이 너무 작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도서의 경우 실제로 대여하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용 도서의 경우, 저소득층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도서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도외시할 수도 없다. 또한 도서관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도서들의 대여율이 여타 도서의 대여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의 비치 비율을 낮추는 경우, 대여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 도서관의 장서선정 방식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장서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방식 외에 각각의 도서관이 자신들만의 특성을 살리는 장서 목록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서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서관 자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도서관 사용자들에 대한 대여 서비스 중심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인기 도서 외에

장서를 활용한 평생교육,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장서 활용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정 도서관의 추천 도서, 그리고 대여 순위 발표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각 도서관의 주요 사용자 풀(pool)을 조직한다. 이들은 각 도서관에서 다양한 장서를 대여하고 독서량이 여타 사용자에 비해 많은 사용자들로, 이들에게서 모두에게 권할 만한 도서를 추천받는다. 두 번째로, 도서관 사서들이 숨겨져 있지만 각 계층별, 연령별, 분야별로 즐겁게 읽은 책들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각 도서관의 추천 도서가 여타 도서관의 그것들과 달라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도 좋은 도서를 새롭게 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운영에 사용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므로 도서관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서의 활용, 나아가 독서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장서구입 예산의 효율적 책정 및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서관은 번듯하게 건축하나 도서관 내에서의 활동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도서관들은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도서의 기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구입 예산의 증액을 통해 대한민국 출판문화, 나아가 대한민국 지성의 탑을 쌓아야 할 관공서가 앞장서 책을 공짜로 얻으려는 비상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이 하루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집행,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의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서가 쌓여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을 때 마련하는 것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을 번듯하게 지어 놓고 그곳을 채우기 위해 출판사에 책의 기증을 요청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에 하나 그렇게 수집된 도서가 도대체 어떤 사용자에게 환영받을 것인가. 출판사에서 더 이상 수요가 없다고 여겨 폐기할 책을 가져다 장서로 쌓아 놓은 다음 사용자들을 초청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sup>82)</sup>